

글로벌 리더십 공백의 'GO' 시대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장
황세희

코로나 19와 G0의 국제질서

Ian Bremmer, *Every Nation for Itself: Winners and Losers in a G-Zero World*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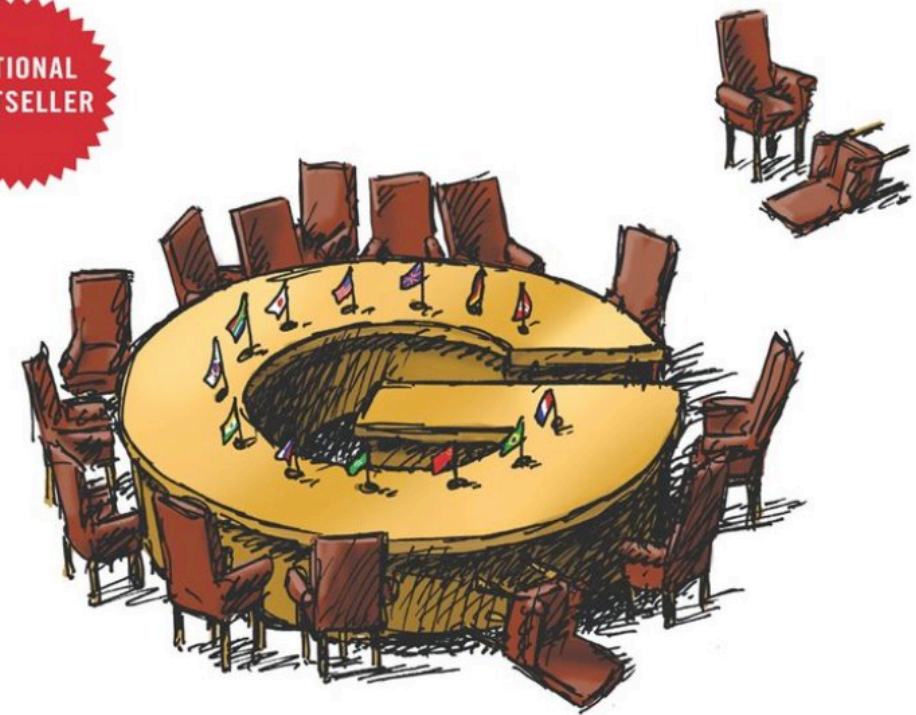
- “글로벌리더가 사라진 세상이 적어도 10여년 이상 지속될 것”
- G0 시대에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5가지 시나리오
 - 미국과 중국의 공조체제인 G2
 - G20이 제대로 굴러가는 조화
 - 냉전 2.0 혹은 그 이상의 것
 - 지역별 분열
 - 시나리오 X라고 칭한 G서브제로

“Global political economy has no sharper or more prescient analyst than Ian Bremmer.”—LAWRENCE SUMMERS

EVERY NATION FOR ITSELF

What Happens When No
One Leads the World

NATIONAL
BESTSELLER



IAN BREMMER

author of *The End of the Free Market*

With a New Preface

COVID-19 이전의 세계란?

‘디폴트 파워(The Default Power) 미국’이 존재하던 시기

- Josef Joffe,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9.
- 디폴트 파워: 모든 글로벌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
- 경제력, 교육인프라, 군사력, 젊은 인구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쇠락하지 않을 것
- 미국 없이는 글로벌 질서의 유지와 운영이 무의미

FOREIGN AFFAIRS

Magazine ▾ Regions ▾ Topics ▾ Collections ▾ Book Reviews ▾ More ▾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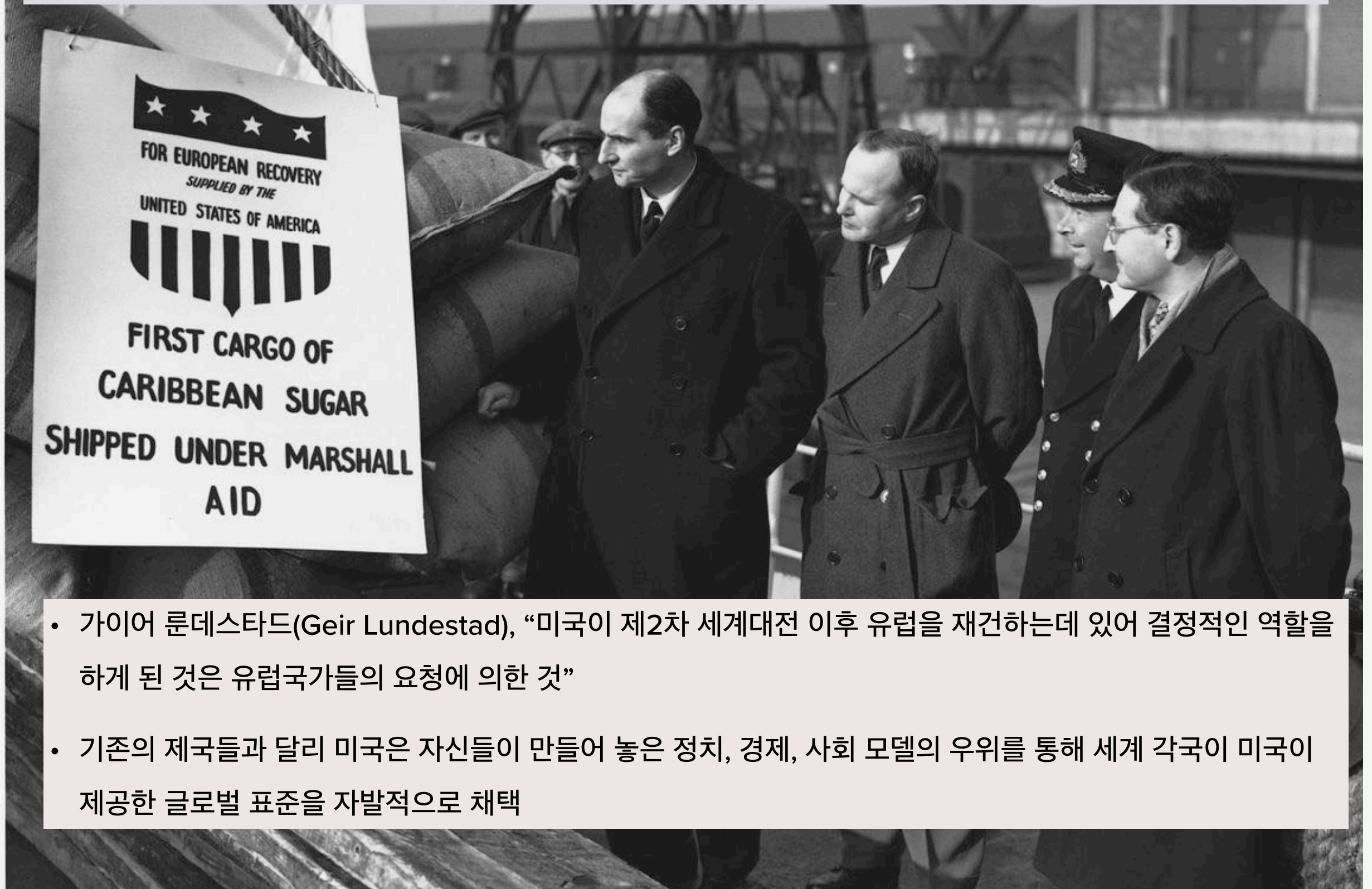
By Josef Joffe September/October 2009



Courtesy Reuters

Every ten years, it is decline tim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50s, it was the Sputnik shock, followed by the "missile gap" trumpeted by John F. Kennedy in the 1960 presidential campaign. A decade later, Richard Nixon and Henry Kissinger sounded the

‘초대받은 제국(Empire by Invitation)’, 미국



- 가이어 룬데스타드(Geir Lundestad),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유럽국가들의 요청에 의한 것”
- 기존의 제국들과 달리 미국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모델의 우위를 통해 세계 각국이 미국이 제공한 글로벌 표준을 자발적으로 채택

글로벌 리더십보다 ‘아메리칸 퍼스트’

- 미국이 글로벌 질서의 기초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이상 국제질서의 ‘디폴트 값’이 아님
- 미중 무역분쟁
- 미국-EU 무역분쟁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 2020년 7월 1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멕시코의 노동조건을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요구



USMCA 서명

디폴트 파워에서 퇴장하는 미국

USTR, 2020년 무역정책 아젠다 및 2019년 연차 보고서

- 자국내 일자리 창출이 최대 목적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12개월 동안 제조업 일자리가 1만5000개가 사라진 반면 당선 이후 미국 경제에 50만개가 넘는 제조업 일자리가 추가”
- 영국, EU, 케냐와 신규 무역협정 추진
- 미일간 무역협정과 디지털 교역 협정,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추가 협상
- 미국은 자국 무역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집행
- 양허 관세율을 비롯한 WTO의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2020 Trade Policy Agenda and 2019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디폴트 파워에서 퇴장하는 미국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에 대한 일방적 이탈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2017)
- 유네스코 탈퇴(2019.1)
- 파리기후협약탈퇴(2019.11)
- 항공 자유화 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 선언 (2020.5.)
- WHO 탈퇴 선언(2020.7.6)
-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 (2019)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대한 방위비 인상 압박



출처 : Warwick Hong Kong Public Affairs and Social Service Society



출처 : <https://www.npr.org/>

미국은 소련의 길을 걸을 것인가

Harold James , “Late Soviet America,”
Project Syndicate, Jul 1, 2020.

- 2020년의 미국은 붕괴직전의 구 소련이 거쳤던 상황에 직면
- “미국이 말년의 소련처럼 지도력의 비극적인 실패와 마침내 끓어오른 사회경제적 긴장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 지난 3년 반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달러를 무기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음. (이란, 중국,러시아)
-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에서도 달러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강구
- 국가중심이 아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빈곤과 제도적 저개발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제도적 복잡성과 혁신과 번영의 기회로 전환하는 수단을 제공
- 코로나 19로 드러난 미국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의 기본적인 역량과 국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지도



English



32

Late Soviet America

Jul 1, 2020 | HAROLD JAMES

Like the Soviet Union in its final years, the United States is reeling from catastrophic failures of leadership and long-suppressed socioeconomic tensions that have finally boiled over. For the rest of the world,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s that the hegemony of the US dollar may finally be coming to an end.

PRINCETON – The Soviet Union was fertile ground for political jokes, which featured as prominently in the culture as late-night comedy does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one popular story, a young man who shouted in Red Square that the decrepit Soviet leader Leonid Brezhnev was an idiot ended up being sentenced to 25.5 years in prison – six months for insulting the Chairman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Soviet, and 25 years for revealing state secrets.



America's Compromised
ato

The Trump administration's furious reaction to a new book by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has followed a similar script. The book is considered dangerous not so much because it insults Donald Trump as because it reveals that the president is deeply incompetent and “stunningly uninformed.” If it wasn't obvious already, the whole world now knows that the US lacks any strategic orientation or coherent executive leadership.

In fact, many aspects of America's current *annus horribilis* recall

FEATURED

1 China's Deep
Geopolitical
Jul 16, 2020 |

2 G20, Heal T
Jul 15, 2020 |
SACHS

3 Keep Borde
Jul 17, 2020 |
KOUJIANOU

4 Saving the
Deal
Jul 14, 2020
BORRELL

뉴 노멀은 미중경쟁이 일상화된 세계

미국의 미래가 소련과 다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차이는 붕괴할 국가를 대체할 국가가 존재하냐는 것

-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은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미국이 굳건히 패권의 공백을 흡수했기 때문
 - 냉전후 질서의 성립과 미국의 리더십 : 독일의 통일, 유럽연합의 탄생과 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장, 미일동맹의 재확인 과정
- ✧ 미국이 소련처럼 붕괴할 경우, 중국은 과거 미국이 담당했던 글로벌 질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디폴트 파워’로서 기능할 것인가?
- ✧ 국제사회는 중국을 과거의 미국처럼 ‘제국으로서 초대’할 것인가?

Trade is just an opening shot in a wider US-China conflict



출처 : The Financial Times

the future of U.S-China conflict

CSIS, *The Higher Road: Forging a U.S. Strategy for the Global Infrastructure Challenge*, April 23, 2019

-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세계의 디지털 인프라를 독점하거나 그것을 지배하는 표준이나 규칙을 지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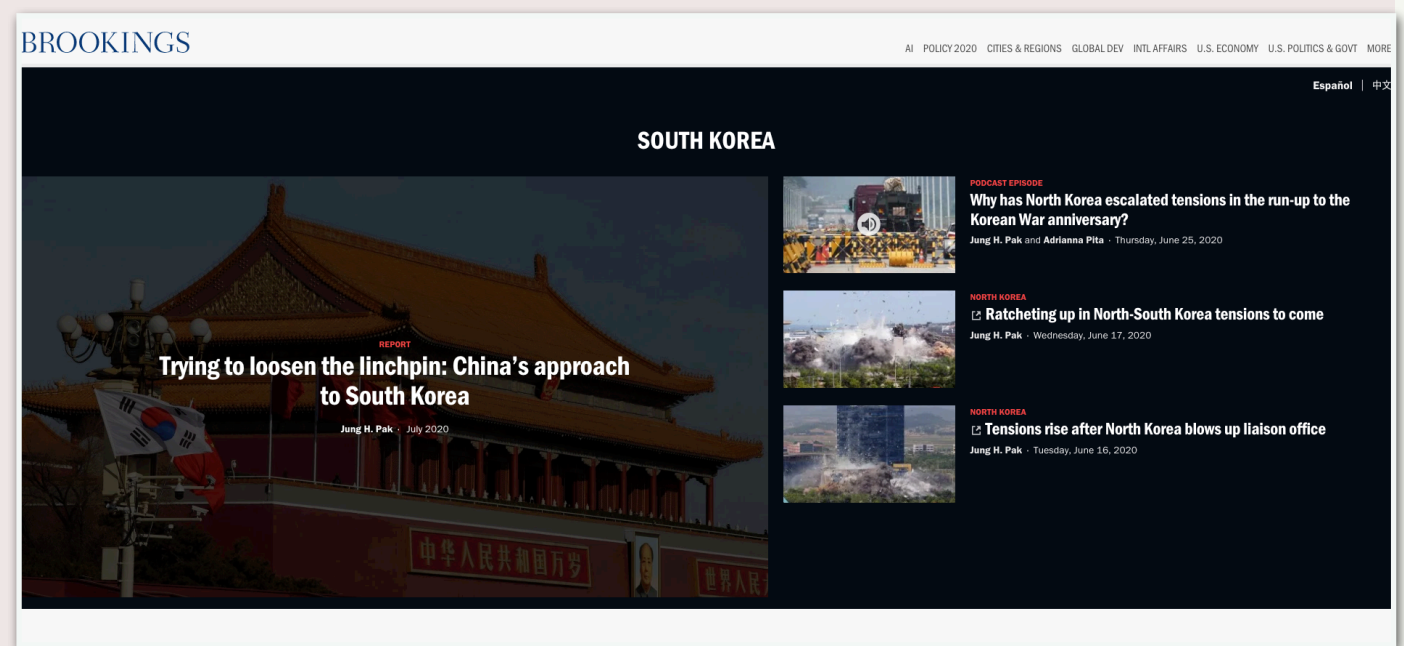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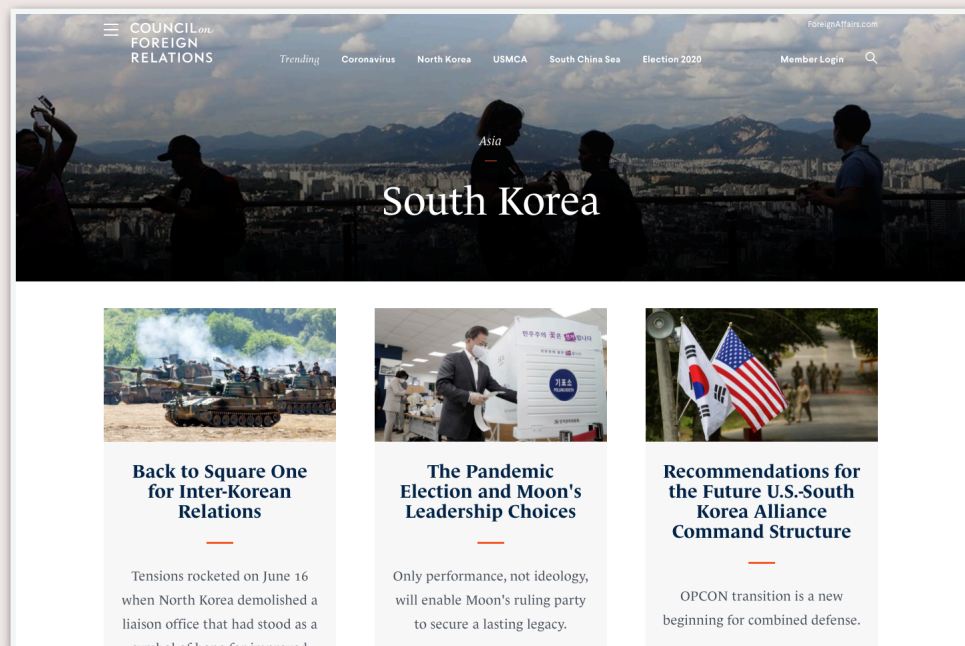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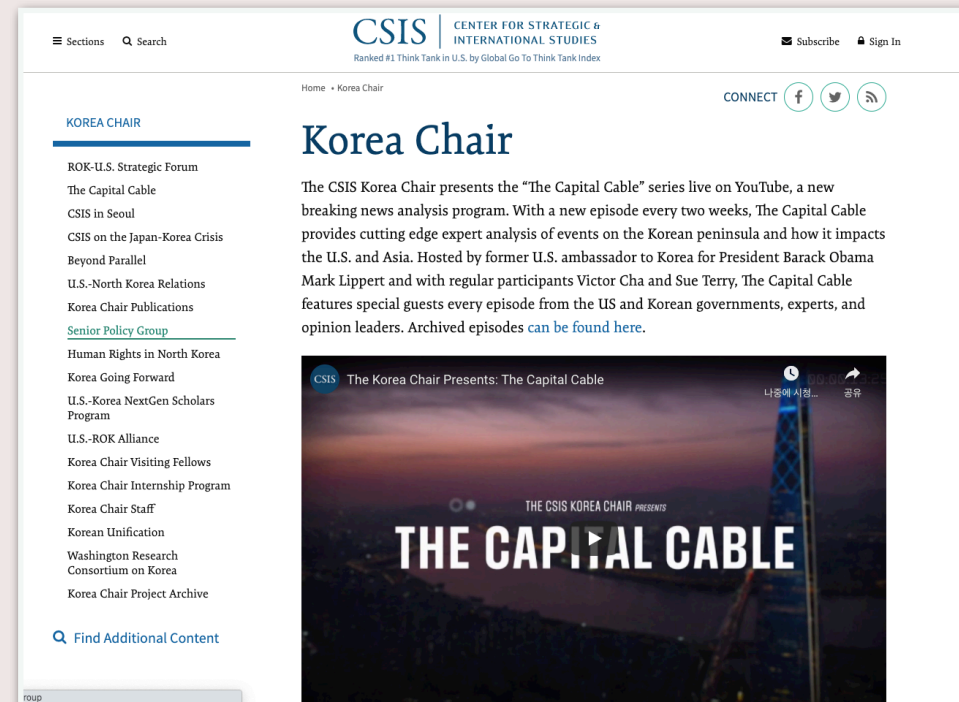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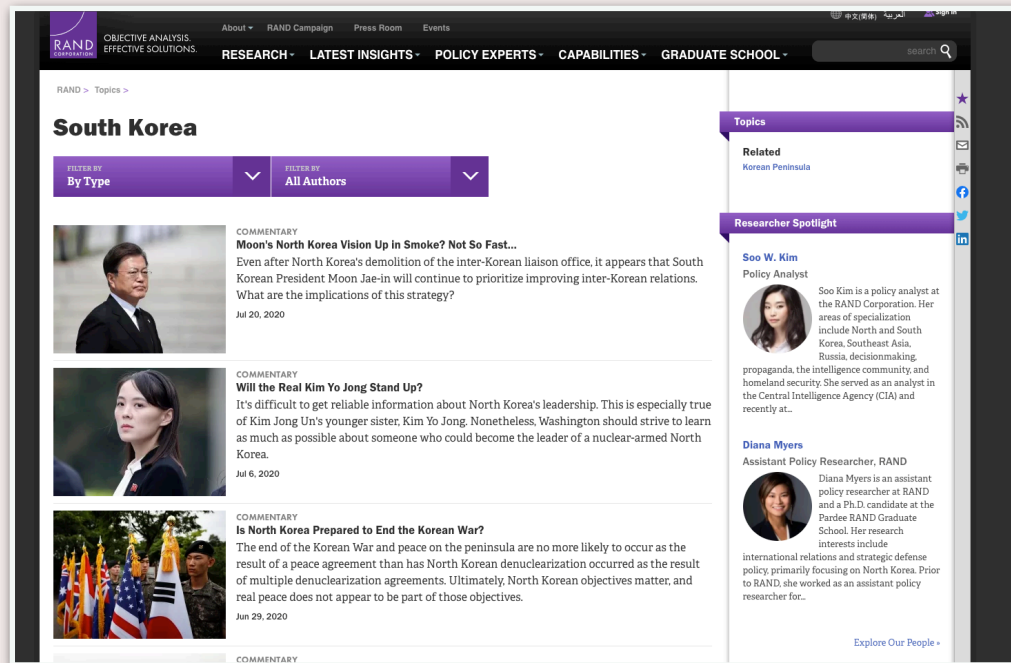
John Chipman, “China’s long and winding Digital Silk Road,” *IISS*, January 25, 2019.

- 중국이 일대일로 선상에서 추진 중인 광섬유 케이블, 국제 간선 통로, 모바일 구조, 전자상거래 링크 등의 건설은 참가국에 공통적인 기술 표준을 도입하도록 설계



한국의 외교전략, 뉴 노멀로의 전환이 시급

- 한국의 정책공공외교는 한반도 문제, 북핵 외교에 집중



다음 세계의 질서를 고민하는 민관 국제전략 플랫폼이 필요

- 지구적 도전들을 관리하는 안정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교전략가, 외교관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
- 한국의 외교안보 자원을 적극활용하고 국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전략 생태계를 형성해야
- 미중일러의 국가전략을 집중연구하는 **국제전략연구처** 설치
- 글로벌 싱크탱크의 한국 지소 유치와 연계한 **국제전략 플랫폼** 추진



2019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ONE HUNDRED SIXTEENTH CONGRESS
FIRST SESSION

NOVEMBER 2019

Printed for the use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vailable online at: <https://www.uscc.gov>